



# ‘佛法지켜서 富者된다’는 믿음부터 갖추자

## 가치 훼손없는 사업 모색 시급 법인 설립 등 전문성 강화 제시

“불교적 가치와 수익사업 추구가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전문인력의 영입으로 수익사업의 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조계종단의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도문)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과 재무부 장영욱 총무원 재무부 사업팀장이 발제에 나섰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법인체 설립 등 수익사업의 주체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명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법안 스님은 불교적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원칙 없는 과도한 이윤 추구가 생명과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

단 수익사업에서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불교적 가치와 이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사찰유지지를 활용한 약초·유기농산물 재배, 생협, 불교식 장례사업, 국제명상센터, 문화재보수사업 등을 제안했다.

불교적 가치 준수에 대해서는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남진 NGO리서치 연구소장은 “종단 사업 설계 때부터 이타적 서비스 구조로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교적 가치 그 자체가 비즈니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는 사고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이를 위해서 종단이 ‘플랫폼 사고’를 강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진 소장은 “종단이 무엇을 제공하면 많은 불교 인력이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사람을 채용하고, 재화와 가치·능력들을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유통시키는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욱 재무부 사업팀장은 ‘종단 재정사

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장 팀장은 조계종 생수가 시장의 60~70%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산간 등에 위치한 사찰의 배달문제, 유통 확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서비스의 경우 불교식 장례식 장례·포교와 결합하지 않아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종단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과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수익사업 추진 경영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또 “현 단계에서는 사업 영역 및 사업규모, 사업성 등과 연계해 기존 법인에 흡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 조직을 행정 조직에서 분리하고 법인화해 지속적인고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과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법안 스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스님은 수익사업의 주체를 확립하고,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스님은 “법인 설립의 전조

정으로 ‘조계종 수익사업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의 일원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2-3인의 종무원들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우와 함께 이상근 대표도 종단이 지주법인 형태의 수익사업체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대표는 또 종단이 재정 확보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전국 2000여 불교관련 사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토론자인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도 불자들이 가운데 뛰어난 전문 경영인을 통해 컨설팅을 받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스님은 수익사업의 원칙이 확립된 상황에서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 스님은 “수익사업은 종단의 운명과 같다. 투명성, 공익성, 도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화의 씨앗이 될 뿐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배치되지 않는 사업을 합리적 경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미디어는 현대식 사찰...적자라고 없애서야

### BBS불교방송 신임 이채원 사장



“IPTV를 비롯한 신문, 방송 등 미디어는 현대식 사찰입니다. 신도의 발길이 적다고 해서 부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9월 26일,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제 76차 이사회의를 열고 이채원 前 강릉 MBC 사장(사진)을 제8대 사장으로 선출했다. 사장 선출이 공전을 거듭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사장 취임 후 보름여가 지난 10월 12일,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은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와 계획 등을 밝혔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을 면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장이 부재한 채 노력해 온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채원 사장은 “(사장을 지낸) MBC는 상업에 가까운 공영방송이지만, BBS 불교방송은 종교방송이다. 상업방송의 시청률 지상주의를 종교방송의 모토로 삼을 수는 없다. 둘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면담 통해 경영 안정화 방안 모색  
IPTV 진출은 현대식 포교 방안  
불교적 규범 준수한 경영 다짐  
공영 미디어랩 포화 위해 주력

BBS불교방송은 오래 전부터 경영수지가 악화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IPTV 등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종편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과 광고수수 감소 등이 불교방송BBS가 직면한 어려움들이다. 이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었다.

이채원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보니 그동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보라고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IPTV 등 BBS불교방송이 운영 중인 미디어를 보는 시각은 신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장은 “IPTV 등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 사찰이다. 신도의 발길이 적다고 해서 황폐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IPTV는 아직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하지만 이채원 사장은 이를 “IPTV는 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사장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독경 소리에 잠이 깨고, 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다. 불사가 있는 사찰에는 관광버스를 여러 대 대절해 불사를 도운 왕보살 어머니의 공덕으로 오늘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채원 사장은 “자비 등 불교적 규범

에 의해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다. BBS 불교방송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불교적 규범을 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사장대행 체제에서 사측과 참여한 대립을 보였던 노조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BBS불교방송은 빠른 시일 내 지방발령으로 보복인사 논란이 있던 노조위원장을 본사로 복귀시키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조는 비록 정제된 목소리는 아니지만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위ixin호를 보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채원 사장은 프로그램 편성 개편 등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직원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장기적인 회사 비전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광고 수익 개선을 위해 공영미디어랩에 종교방송의 하나인 BBS불교방송이 포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BBS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정용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채원 신임사장 취임축하와 협력의 뜻을 밝혔다.

불교방송 노조는 “신임 이채원 사장의 취임을 환영한다. 노사상생과 불교방송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무문관

### 천축사 묵언템플스테이 열기로

1964년 건립돼 관음·제전·구암·원공 등 100여 스님들이 정진했던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이 폐관 20여 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봉산 천축사(주지 범우)는 10월 5일 무문관을 재개원한데 이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문관 활용계획 등을 밝혔다.

천축사 무문관은 1964년 육영수 여사 등의 보시로 건립돼 4~6년 동안 면벽수행하는 수행처로 유명했다. 1965~1979년 두 차례 6년 결사 동안 100여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였지만 정진 기한을 채운 스님은 4

명에 불과했다.

주지 범우 스님은 “천축사 무문관은 조계종의 첫 무문관이다. 1979년 폐관한 것을 선지식들의 뜻을 받아들여 3층 규모의 현대식 석조건물로 개비했다”고 말했다.

천축사는 도봉산 입구에서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된다. 스님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천축사의 지리적 불리함을 명상과 묵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천축사는 먹거리를 참가자가 직접 짚어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천축사는 이런 산중사찰의 특징을 살려 참가자 자신이 갖고 올라온 먹거리를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것도 정례화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이 폐관 20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10월 5일 무문관 낙성 범회의 모습.

할 예정이다.

범우 스님은 “불사를 마친 무문관을 사부대중 모두의 수행처와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겠다. 시민선방과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해 선지식의 수행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법당 및 전각의 마루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마루 바닥을 3~4회에 걸쳐 고르게 원목 그대로 표면 처리 합니다



2. 코팅 후 칠이 마른 다음 한차례 더 표면을 깎아낸 후 마감 코팅을 합니다



3. 완성된 깨끗한 모습.

**밝은 세상**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 이메일 lty64@korea.com